

리나라에서 알려진 일이 없던 綠釉瓦製의 千佛尊像이라는 點으로 注意를 끌게 되었다. 이들 千佛尊像은 第一片이 高가 二五 cm 幅이 一四·五 cm 두께는 四一·二·五 cm 程度, 第二片은 高가 一一·五 cm 幅이 一〇 cm 두께는 二·三一·一 cm 의 고르지 못한 두께의 陶板으로 되어 있으며 그 表面에 押型으로 大小二種類의 如來像을 빈틈없이 찍은 것이다. 大形如來는 약간 도드라진 타원형 龕室形 안에 있으며 蓮華座 위에 結跏趺坐한 佛身 高이 七·二 cm (蓮華座包含)의 坐像이다. 이들 如來의 顔面表現은 分明치 않으나 降魔觸地의 手印을 보였고 肉髻는 도톰하며 날선한 佛身 뒤로는 寶珠形頭光과 身光이 희미하게 걸드러져 半肉彫의 고운 레리-푸를 이루고 있다. 小形如來는 上端이 도드라진 寶珠形 龕室形 안에 二重身光이 表現되었고 그 안에 희미하지만 大形如來像과 같은 降魔印으로 보여지는 高이 三 cm (蓮華座包含)의 結跏趺坐像이 蓮華座 위에 安座하고 있다. 이 如來들은 그 配列의 狀態로 보아서 그 秩序가 整齊된 것은 아니었던 듯 하며 따라서 第一片과 第二片은 相異한 配列을 보이고 있다. 이 兩片에 押捺된 大小 如來像의 配列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片은 上端部에 大形 如來像이 並列되어 있고 그 아래로 小形如來像이 二列橫行으로 三軀씩, 都合 六軀가 配置되어 있다. 이 斷片의 右端을 빼는 三面이 모두 缺失되어 있으므로 大, 小如來像의 配列原狀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이 陶板의 原形도 그 크기를 짐작할 수는 없다.

第二片은 第一片의 配列과는 다른 不規則한 配列이다. 即 右端 上部에 있는 大形 如來 一軀를 둘러싸고 그 왼쪽에는 三軀의 小形如來가 거의 어금매껴서 配列되었고 그 下端部에는 斷切된 龕形의 上半部가 보이고 있다. 이들 왼쪽의 小形如來들은 大形如來像의 中間을 分界로 해서 上·下列로 나누어 適當히 配列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써 보면 그 配列의 原狀은 大形如來의 周邊에 不規則하게 小形如來들이 密集해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된다. 그러나 이들 兩片에 大形如來가 어떠한 樣式으로 어떠한 數가 配列되었는지는 이 斷片으로만은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知見이 期待된다고 하겠고 또 이 第二片은 四面이 모두 斷片임으로 第一片보다도 그 原形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우며 그 두께도 裏面이 脫落

되어서 얇아진 것이므로 그 두께 역시 짐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斷片은 素地에 모래가 섞인 赭色의 胎土이며 釉裏에 가까운 部分만 이 灰色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燻造時에 表面이 還元燒成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釉調는 全般的으로 綠褐色을 나타내었고 釉質은 매우 軟弱해서 脫釉된 部分이 많으며 이러한 部分에는 굳데 굳데 綠苔로 보여지는 이끼같은 것이 着色되어 있고 또 이들 斷片은 斷切部에도 釉藥이 浸透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燻造時의 龜裂에 釉藥이 녹아서 흘러들어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龜裂 때문에 이것이 모두 斷片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中國에서는 六期時代以來 이미 數많은 千佛信仰에 關係되는 佛蹟을 남겨온 것으로 보아 宜當 우리나라에도 千佛信仰이 流傳되었을 것임으로 이에 關한 佛蹟의 出現이 期待되었던 것은 勿論이다. 多幸히 이 綠釉千佛塼의 發見에 앞서 一九六一年七月 畏友 秦弘燮 教授가 鳥致院近郊에서 癸酉銘三尊千佛碑像(註)을 調査했던 것은 이번 新例와 아울러 이미 三國時代以來로 千佛信仰이 우리나라에 傳해 내려왔고 또 이에 따르는 佛蹟도 적지 아니 造成되었으리라는 點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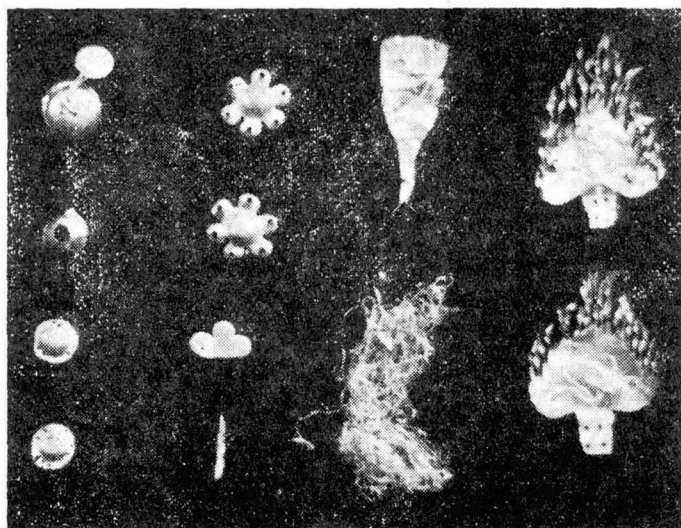
이 綠釉千佛塼은 그 內包된 羅末風 如來像의 手法이나 羅末綠釉陶器에 類似한 釉調 등으로 보아 대개 九, 十世紀頃의 作品일 것으로 짐작된다. 元來 여기에 딸린 또 하나의 小片이 있었으나 이것은 美國人 헨다-스씨가 入手해서 國外로 搬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註〕秦弘燮 歷史學報 十七, 十八合輯 所收「癸酉銘三尊千佛碑像에 對하여」

資料

百濟 純金裝飾金具

黃 壽 永



一九六三年에 忠南地方(扶餘 公州附近)의 古墳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한 伴出遺物이나 正確한 地點은 알 수 없다. 現在 서울市 樂園洞 張鳳文氏의 所藏인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1963, 11, 14, 鄭永鎬氏와 調査撮影).

(1) 金製圓形金具 計四個 (寫眞左列)

A, (寫眞左列上) 一個: 徑一·三cm, 圓隆되어 環路一片이 달리고 圓臺에 三孔

B, (寫眞左列上第二) 一個: 徑一·〇cm △形으로 貫通되었음.
C, (寫眞左列下) 二個: 徑一·〇cm 中央이 隆起되고 圓臺에 雙孔

三處

(2) 金製六瓣花形金具(徑一·六cm 各瓣마다 一孔이고 瓣形과 中央部가 圓隆) 二個(寫眞左二列上)

(3) 金製山形板(幅一·五cm △形) 一個(寫眞左二列下)

(4) 金片(長四cm 幅一·五cm 兩邊에 刻線紋) 一個(寫眞右二列上)

(5) 金絲(扶餘附近出土의 既知例와 同一) 一括(寫眞右二列下)

(6) 金製裝飾板: 寸의 同大(一〇·七高四cm 幅二·九cm 一〇·七高四·三cm 幅二·九cm)로서 하—트形으로만 들고 兩緣은 細長한 板狀으로 오려서 다

시 그것을 鈔아 直立케 하였다. 下面은 梯形으로서 四孔을 뚫어 插入固定케 한 듯 하며 中央에는 點線文으로 紋을 장식하였다. 이것은 曷시 冠具가 아닐까 하며 火焰形의 細工은 耳環垂飾 또는 金銅冠(例, 義城塔里古墳出土)의 手法과 同一하다 (이같은 綫線의 數는 一이 十九一은 二十五인데 이 外에 折斷된 一個(寫眞左二例最下)가 있다) 二個(寫眞右例上下).

以上은 모두 衣冠 등에 金絲같은 것으로 케어 달았던 裝身金具로 推定되는 바 公州 扶餘 等地에서 出土된 類品이 있음에서 百濟下代의 것으로 보고자 한다.

(參照: 輕部慈恩 著「百濟美術」圖版二五의 二公州出土金具 公州宋山里古墳調查報告 一九二七年 圖版九—二)

考古美術 뉴스

◎ 文化財委 第一分委(十七次)

一九六三年 十二月 五日 文化財管理局長室에서 開催 出席委員 金庠基 金載元

李弘植 李相佰 黃壽永 討議案件 如左

- 一、海印寺板庫補修: 上屋架設을 保留하고 所要木材購入할 것
- 一、石窟庵追加工事: 寮舍 便所 工事追加와 塔補修 可決 黃委員으로부터 工事殘量 移越과 越冬期에 報告書作成 人件費增額 丹靑施工方法 등에 關하여 報告 및 討議가 있었다.

一、陶山書院尙德祠丹青과 繪물담 工事: 可決

一、指定審議(議決된 것)

國寶: 延嘉七年金銅如來立像 一軀(一一九號) (慶南 宜寧郡 大義面 下村里 出土) 現品을 鑑定하였고 (고구려 六世紀) 國博 展示키로 한다.

龍珠寺銅鐘 一口(二二〇號)

寶物: ○水原八達門 ○水原華西門 ○鎮川蓮谷里石碑 ○德周寺磨崖佛 ○丹陽香山里三層石塔 ○天安三臺里磨崖佛 ○靈塔寺金銅三尊佛 ○論山雙溪寺大雄殿 ○淨岩寺水瑪瑙塔